

도로표지판에서 사찰이 사라졌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 G20 앞두고 송림사·송광사·선운사·안국사 삭제 물의

전북 주요도로 표지판에 사찰안내 표시를 지우고, 인근 지역명도 표기해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황급히 수정에 나섰다.

문제의 도로 표지판은 익산 용안삼거리, 덕용 교차로 지점의 송림사(보물825호 보광전 보유) 표지 2곳과 완주 송광사(보물1243호 대웅전 등 2점) 3곳, 고창 선운사, 무주 안국사 등 주요 국가문화재 보유사찰 표지가 도로 안내 표지판에서 사라졌다. 또 선운산, 내장산 등 명승지의 안내표지도 모두 인근 지역명도로 변경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의해 3개월 전부터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도로표지 선진화 계획안에 따



(좌)선운사 표시를 지우고 흥덕으로 고친 흔적이 보인다. (우)전북 완주군 백제예술대학 앞 17번 국도 가톨릭 성지인 천호성지 표시는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대로 표시돼 있다.

라 도로표지 안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로표지사업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표지 선진화 계획안은 △지방 도시 간의 경계 및 시내 진입 후 연속성 확보 △국도에 연결되는 도



로의 회전전후 안내의 연속성 확보와 회전후 안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로표지사업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산 가톨릭 성지인 17번 국도 '천호성지'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표

시돼 있어 전주국도관리사무소측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와 담당자는 "G20을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면서 사후 처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본부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방문객들이 찾는데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안내표지가 사라져 있어 국도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현재는 원상복구 한 상태다"고 말했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는 송림사의 경우 원상복구 시켰고,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규정에 맞게 12월 8일까지 모두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관람료와 주차비 받지 않습니다"

순천시, 선암사 재산관리 부실 드러나

순천시가 선암사 입장료와 문화재 관리를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내부적으로만 결산해 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11월 29일 "순천시가 선암사 입장료 등 수입금 10억여 원을 시 예산 편입 없이 별도장부로 관리한 것은 잘못이다"며 "수십억 원의 수입금에 대한 외부의 감사 기능이 적혀 작동되지 않은 채 시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다"라고 지적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규로 1970년부터 선암사 재산관리를 위탁받아 문화재 관람료와 토지 임대료, 주차비 등으로 연평균 3억 3000만원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다.

선암사는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순천시는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비, 선암사 토지에 대한 사용 공금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선암사나 조계종에 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어 "순천시는 현재 주차비와 문화재 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함으로써 상가변영회 및 선암사 포교와 신도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2일부터 선암사 관람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암사는 "2004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를 들여 개관한 전통야생차체험관이 사찰토지에 건립됐으면서, 조계종과 선암사측의 양해 없이 순천시가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재산형량이다"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선암사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암사는 2일 추가로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도선암(순천 상사면 소재) 등이 없어졌으며, 박물관의 부실운영, 문화재를 도난당했다"며 "재산관리주체인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비의 연탄 날아갑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와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 자비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2월 3일 광주지역 독거노인세대 70여 세대에 연탄 1만 4000여 장을 전달했다. 연탄은 본지가 공동주최한 2010 빛고를불교아카데미 수익금과 사찰, 단체, 개인 등 이 뜻을 모아 700여 만원으로 마련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정 스님 책은 집안의 상비약"

법정 스님 가르침 호남지역에 전파하는 현장 스님

"다른 책들은 읽으면 누구에게 주거나 없애는데, 법정 스님 책은 집안의 상비약처럼 두게 된다. 스님 책은 약(藥)같은 존재가 됐다. 자신 마음이 괴롭거나 마음이 아플 때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법정 스님의 서간과 목적, 도자기, 편액 등을 모아 전시회와 서적 <무소유의 향기, 법정 스님 선묵집>을 출간하면서 법정 스님 선양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스님(지장왕사 주지, 법정스님기념관을 만났다.

"법정 스님은 스님이면서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메아리는 떠나신 후에 더 크게 울리고 있다. 그 중 저술활동을 통해 무소유의 철학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스님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 선양사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법정 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며 실천해왔다. 이 인연으로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배운 삶과 사상을 호남지역에 뿌리내리고자 최근 '법정스님기념관'과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을 현장 스님이



법정 스님 저술로 독서토론 불일암 다실에서 스님 삶 체험

주지로 있는 광주 지장왕사에 옮겨 본격적인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종교인들도 스님 책을 보고 자기 종교를 바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있다. 일반인들도 스님의 책을 읽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고 있다. 그래서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일이 불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법정 스님 기념관에서는 스님의 저술에 대한 독서토론을 통해 삶과 사상을 나누고, 봉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불일암 다실', '불일암

선실'을 조성해 스님의 삶을 체험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스님 입적 후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졌다. 재도약의 기회다"고 설명했다. 그 첫 선양사업이 선묵집 전시회와 서적출간이었다. 스님은 "스님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반면 지인들에게 써 주신 계승, 선시, 편액, 서간문 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귀한 것이다. 시간이 가면 소멸될 소지가 있어 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책을 보면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자연현상, 인간관계, 선시, 계승 등을 통해 후세의 스님들이 법정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스님은 향후 광주맑고향기롭게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부의 독거노인 도시락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사업, 입산부에게 명상음악으로 2세들에게 감성을 키우는 육아포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과 현대인에게 다가갈 방침이다.

스님은 최근 '다래헌' 출판사를 설립했다. 이는 적극적인 출판선양사업을 위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1일 엄마' 만나 따뜻한 하루

결손가정 소년원생들과 명예부모 결연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 불자들이 조손가정 소년원생들의 대모(代母)로 나섰다.

여수 청암사 어머니회는 12월 8일 법무부 소년보호교육기관 고통정보산업학교(교장 고봉용, 광주소년원) 원생과 명예부모 결연식을 개최하고 '1일 부모'가 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은 평소 교회활동을 많이 하는 지암 스님이 부모가 없는 가정의 학교 원생들의 안타까운 사

연을 듣고서 이들 신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청암사 어머니회 회원 14명은 학생 중 조손가정 아이들 11명과 인연을 맺고, 매월 학교를 방문해 결연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지암 스님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머니회원들과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0원 희망불씨콘서트

부산생명나눔 15일 개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2월 15일 제5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희망 콘서트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원 희망 저금통'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적은 돈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들어온 저금통 전액은 환우들에게 전달된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선풍기, 믹서기
성공신화 신일산업에서

"아심차게 준비한 각질관리기~!!"

신일이 만들면
모터부터 다릅니다.

비교 거부 유사품주의!! **SI**마크를 확인하세요

각질제거기

제품기능적 특성(소구점)

- 기존의 각질관리기 보다 힘들지 않고 자동으로 마른발에 사용하는 간편한 제품(원터치 형식)
- 남녀 노소 계층의 구분없이 두터운 소비계층
- 국내 100% 완제품
- 각 가정마다 손톱깎이 처럼 한 두개씩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제품
- 환절기에는 발이 갈라짐에 따라 통증이 있음
- 건전지 교체 형식의 반영구적인 제품
- 작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뛰어난 그림감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 사용전과 후의 각질관리 비교가 확실한 제품
- 각질관리후 풋크림 사용시 더욱더 효과증대
- 강력한 모터의 힘과 특수 회전축의 기술력으로 각질 관리의 효과가 뛰어남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기본구성
본체 + 노즐 1개 + 풋크림 1개

추가구성 노즐1개

추가사은품 풋크림1개

99,000원

39,800원

쉽다! 빠르다! 간편하다!

이런분들에게 권합니다. < >

발, 다리에 허물개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

스타킹을 신을때 자주 울이 나가는 분들

겨울 발, 자식없는 발을 갖고 싶은 여성분들

출산 후 각질이 일어나는 여성분들

겨울철만 되면 발꿈치가 갈라져서 고통받는 분들

허무중립 주꾸나 신발을 신고 일하는 분들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됩니다.

구입문의 : 031-454-3110

입금계좌 : 농협 302-0128-3007-71 김원중